

의안번호	제 252 호
의결년월일	2000. 12. 28.
의결사항	월간가정

발의자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제출 년월일	2000. 12. 2 / .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안)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 건의문(안)

의안	
번호	256

제안년월일 : 2000. 12. 29.

제안자 : 보은군의회의원일동

1. 주 문

- 2000년 12월 31일자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 혜택이 종료
- 현재의 농업용전기료에서 산업용 전기료로 전환
- 현재보다 약 4배 정도의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향후 저온 저장고를 가동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와 부담발생
- 이러한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 지속 건의

2. 제안이유

- 정부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를 200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시키는 처사는 다시한번 농민에게 농업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상실시킴은 물론 삶의 의욕조차 빼앗는 행위
- 그로 인해 지역정서가 날로 불안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날로 심화되어 갈것으로 예상
-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특례 혜택을 지속적으로 건의

농산물 저온 저장고 전기료 특례혜택 지속 건의문(안)

존경하는 님께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해 짐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IMF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국정운영과 병행하여 21세기 복지국가 실현과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소득증대 등에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보은 군민과 더불어 보은군 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농민들은 UR협상과 WTO협정으로 개방된 많은 농산물의 수입과 잇따른 정책의 실패로 인해 농민들의 부채는 매년 증가할 뿐만아니라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1년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 수입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여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이런}정부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를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시키는 처사는 다시한번 농민에게 농업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상실시킴은 물론 삶의 의욕조차 빼앗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전국에 많은 저온저장고 건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로인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농촌 가계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농민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정부의 배려에 대하여 상당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자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 혜택이 끝남에 따라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용 전기료에서 산업용 전기료로 전환, 현재보다 약4배 정도의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향후 본시설을 가동시키기에는 현 농촌실정으로 볼 때 상당한 무리와 부담이 있어 가동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비용을 드린 저온 저장고가 사장되어 쓸모없는 창고로 전락될 수 있으며,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을 하지 못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지역의 정서는 날로 불안하여 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날로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당국과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님께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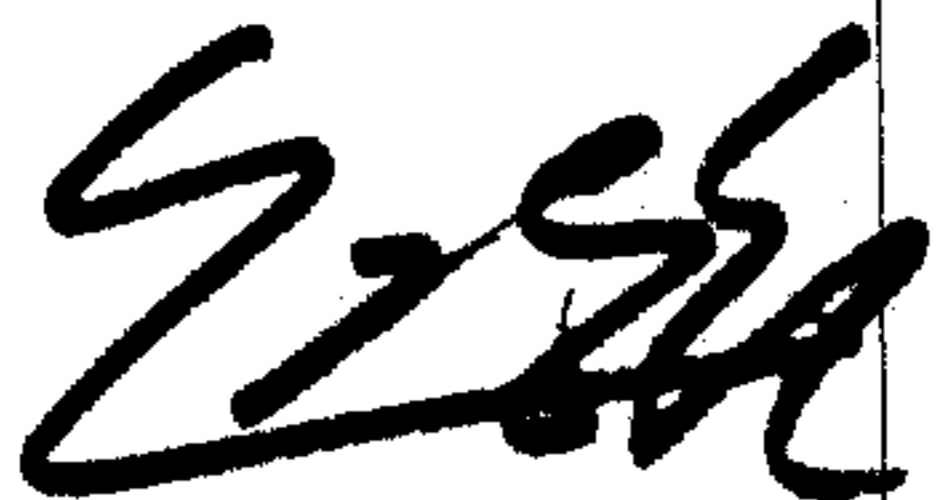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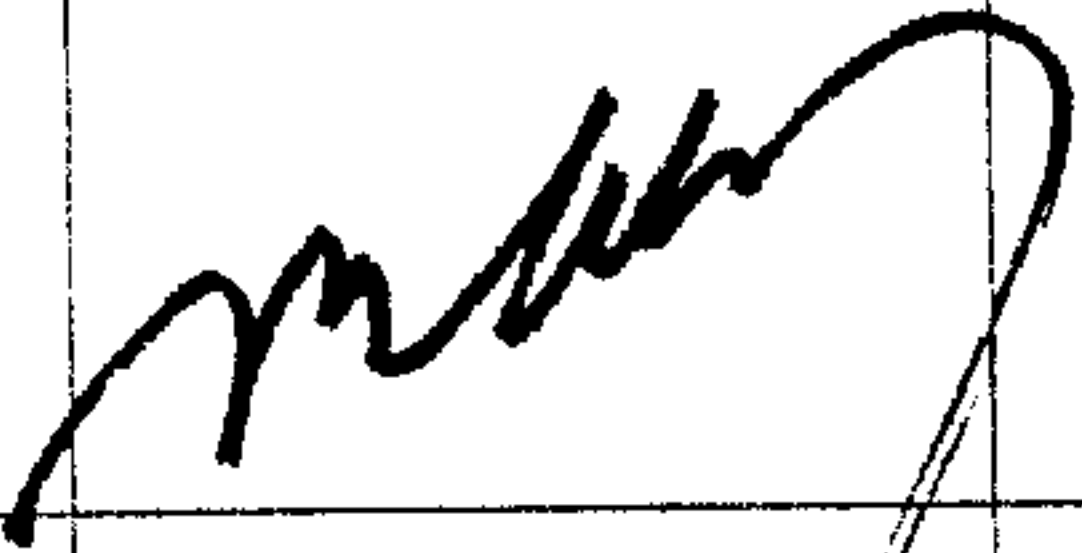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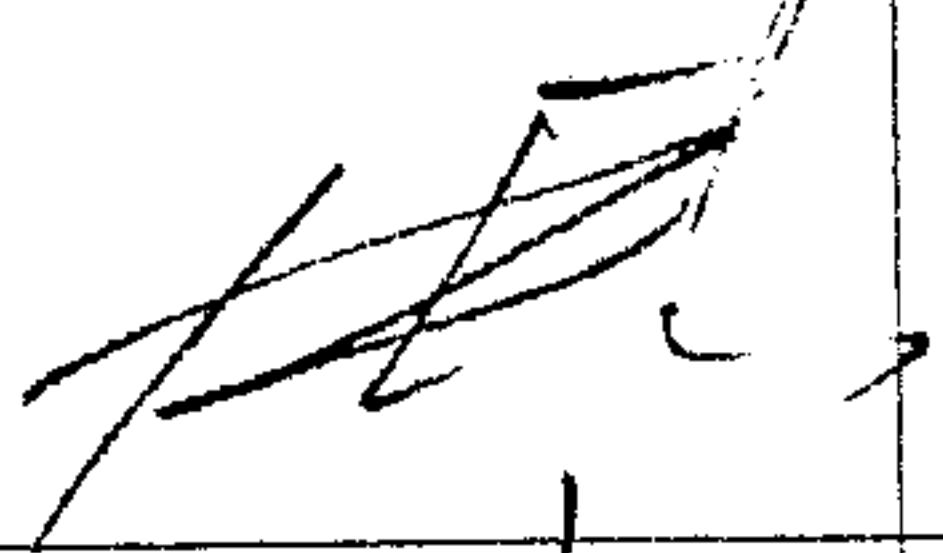
2000. 12. 28.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제출처 : 농림부장관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대표
한나라당 대표

2000. 12. 21.

건의문 서명의원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보은군의회 의장	유 병 국		
보은군의회부의장	류 정 은		
보은군의회 의원	김 인 수	김.	
"	박 홍 식		
"	정 기 형	정기형	
"	이 익 규		
"	조 강 천		
"	오 규 택		
"	우 채 명		
"	송 인 옥		
"	김 연 정	